유아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 돕는다

전북교육청, 유아 구강건강 지원사업 추진

유치원 151개원 · 어린이집 110개소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과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유아 구강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보통합 일환으로 진행중인 이 사업은 4~5세 유아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을 위한 특색사업이다.

지난 9월부터 치위생사 등의 전문강사가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학급 단위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도내 유치원 151개원, 어린이집 110개소 7,6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 대상 교육은 총 4차시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입속 플라그 존재와 충치와의 연관성 이해 △잠자기 전 양치의 중요성과 양치 루틴 생성 △충치 유발 간식과 튼튼 간식 구분, 올바른 간식 선택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 및 건강한 구강 관리 등이다.

학부모 대상 교육은 '아이의 평생 구강건강,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를 비롯해 지역별 추가 프로그램,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본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진행됨에 따라 유아들이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 과장은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기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업 종료후 만족도 조사와 성과보고회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분석,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9일 2층 강당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단체종목 우승팀 격려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 학교체육 저력 재확인'

전북교육청, 전국제전 고등부 단체종목 우승팀 격려

'배구' 남성고 · '핸드볼' 전북제일고, 전국체전 제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9일 2층 강당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단체종목 우승팀 격려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남성고(배구 우승)와 전북제일고(핸드볼 우승) 학생선수단의 노력을 격려하고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성고 배구팀과 전북제일고 핸드볼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안정적인 기량과 조직적인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차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의 저력을 전국 무대에 알렸다.

격려회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윤영임 교육국장,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과 우승교인 남성고, 전북제일고 교장 및 지도교사와 지도자, 학생선수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우승은 선수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며 전북 학생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마음공부', 올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지 되다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지

학술적 공신력 공식 인정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마음공부'가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 학술지 평가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마음공부'는 연구 윤리, 편집 체계, 학문적 기여도 등 학술지 전반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KCI 등재지로 승격되며 학술적 공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KCI는 국내 학술지와 게재 논문의 인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국가 공인 학술정보 시스템으로, 등재지 선정은 학술지의 연구 성과와 운영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의미한다.

이번 선정으로 '마음공부'는 원광대학교와 마음인문학연구소가 지향해 온 '마음공부의 사회화'를 선도하는 학술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마음공부'는 2020년 4월 창간된 학술지로, 물질문명이 주도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통합적이고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창간 이후 사회적·문명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마음'의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현재까지 모두 11집을 발간했다.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은 "KCI 등재지 선정은 '마음공부'가 지향해 온 학문적 방향성과 연구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전문 연구자들의 수준 높은 논문 투고와 국내외 학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음공부 연구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술지 '마음공부'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0일, 연 2회 정기 발간된다.

논문 투고는 매년 3월과 9월 공모 기간에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석대-진안군, '캠핑매니저 1급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

지역 캠핑산업 전문성 강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이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공동으로 추진한 '캠핑매니저 1급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이 30일 진안군 청년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양성 과정은 최근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해 진안군을 지역 대표 캠핑 거점으로 육성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캠핑 창업 마인드 △캠핑 사업 구체화 △캠핑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캠핑매니저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캠핑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며 현장 적용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

이번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전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우석대학교 총장 명의의 '캠핑매니저 1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정희석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장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과정이 진안군 캠핑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유서현 박사과정 연구팀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우수

전북대학교 유서현 박사과정(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이 이끄는 연구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이 주관한 '2025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에는 유서현 박사과정생을 연구책임자로, 권예원·김윤수 학부생이 참여했고, 전주솔내고와 대전과학고 재학생들이 실무 연구에 함께 참여해 대학원, 학부, 고교가 연계된 융합형 연구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조재혁 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IoT 환경 센서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스태킹(Multi-Layer Stacking)과 Scoring Method를 결합한 AI 기반 결측치 보정 모델을 개발했다.

수도권 5개 지역에서 수집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_2), 온·습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 결과, 제안한 모델은 기존 평균대체 및 KNN 방식 대비 RMSE와 MAE 지표에서 20~30% 향상된 복원 성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성과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교생 멘티들은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기본 모델 학습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제 AI 연구 전반을 경험했다. 이들은 연구 과정 전반을 통해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유서현 박사과정생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학교와 연구소,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소규모 환경 모니터링용 경량 AI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는 환경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연계한 환경·건강 상관관계 분석 플랫폼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사회학과, 국내외

학술대회서 수상 성과 잇따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가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아우르는 학문후속세대의 탁월한 연구 역량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잇따른 수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대 사회학과 윤아영 박사과정생은 최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문화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진학문후속세대상'을 수상했다.

윤 박사과정생은 신진학자 심포지엄 세션에서 '취약한 남아의 구성: 신경과학의 정당화와 젠더갈등의 산출'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신경과학적 담론이 특정 젠더를 취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정당화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젠더 갈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부생들의 학문적 성과도 국제 학술무대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세계영상사회학대회(World Conference on Visual Sociology)'에서 전북대 사회학과 학부생 윤가온(24학번)이 최우수상, 김지윤·손예은·이소리 씨(이상 24학번)가 대학생 포스터 발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조은주 학과장은 "학과 내 활발한 학술 토론 문화 활성화와 체계적인 연구지도 시스템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부와 대학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학문후속세대의 학술 활동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탐구중심 수업 · 평가 성과 인정

송풍초 정선규 교사, '대한민국 화과학교육상' 수상

진안의 송풍초등학교 정선규 교사가 '2025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 상은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전국에서 학교급과 지역 구분 없이 10명을 선발했다.

정 교사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학생 탐구 중심 과학 수업을 꾸준히 실천하며 과학교육 혁신을 선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초등 과학 단원을 탐구 프로젝트 형태로 재구성해 수업을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전국과학전람회로 연계해 장관상 등 전국 단위 우수 성과를 이끌었다.

특히, 수업 전반에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해 학생의 탐구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교원 연수 강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전국대회 컨설팅 및 멘토링 활동을 통해 동료 교사와 함께 성장하는 과학교육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수상은 전북 과학교육의 방향성과 현장 실천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화학물질 안전관리 '꼼꼼히'

전북교육청,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매뉴얼 제작

MSDS 개념 · 법적 요구사항 등 현장 활용 내용 담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속 기관과 학교 등에서 각종 화학제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유해·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조치 방법 등을 설명하는 화학물질 사용 설명서를 말한다.

급식이나 미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화학제품의 MSDS를 수집하는 과정이 제조업체마다 다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만든 MSDS 매뉴얼에는 △MSDS 개념 △법적 요구사항 △세부 업무 처리 절차 및 가이드 △조치 이행 점검표 등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전북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학교안전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소속 기관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MSDS 관리 지원 체계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간호대학생 통증 교육 연구 '우수논문'

전북대 노주희 교수님

전북대학교 노주희 교수(간호대학) 연구팀이 국내 간호교육 분야에서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간호교육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노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 강미라 전문간호사, 권연주 수간호사, 김경자 팀장 등과 함께 공동 수행한 연구가 올해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국내 간호대학생의 통증 관련 지식과 태도: 횡단적 연구'다. 이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통증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통증 관련 지식과 태도의 평균 점수는 41점 만점에 20.40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압성 통증과 진통제 사용과 관련된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아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통증 관리 역량과 교육 간의 간극이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팀은 이 논문을 통해 국내 간호대학생의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임상 통증 관리를 위해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개선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언했다. /김재훈 기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 발전 기여

호원대 홍지연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받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간호학과 홍지연 교수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의 발전과 우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홍지연 교수는 그간 호원대 간호학과에서 후진 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우수 인력 배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창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기반 시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시험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홍 교수는 CBT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시험장 환경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시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군산=김만호 기자